

8월 마지막 주말까지 문화광주 뜨겁다

31일 '프린지페스티벌' 17개 팀 참가... '국화를 들고' 초연 눈길 아트컴퍼니원, '포복절도'·디자인비엔날레 성공기원 '작은음악회' 등

문화의 계절 가을을 앞둔 8월 마지막 주말, 광주 곳곳에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프린지페스티벌을 비롯해 평촌마을, 용봉초록습지공원, 북구청소년수련관 등 곳곳에서 연극, 음악회,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거리 공연 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오는 31일 오후 6시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날은 '그야말로 프린지'를 주제로 총 17개 팀이 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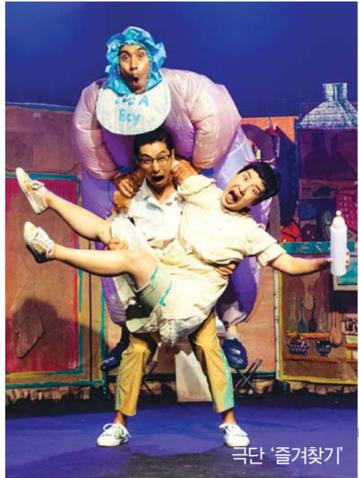
이날 행사에서는 기획공연 '국화를 들고'가 초연돼 눈길을 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때

주 새로운 공연자를 초청,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시리즈 공연으로 선보이는데, 이날은 상무관을 배경으로 무용수 이수인과 전자바이올리니스트 김수진이 '한(恨)풀이 춤'을 공연한다.

이밖에도 무용·마임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는 극단 '즐거찾기'의 '즐거운 나의 집', 풍선과 비눗방울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버블타이거'의 '동심여행', 비보이와 한국 전통 무용수를 결합한 '로우패밀리'의 '춤추는 대한민국', 마술·저글링 그리고 스탠딩 코미디를 더한 '두 매직'의 '벤 and 편소'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또 하늘마당에서는 팝 재즈, 라틴 재즈,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나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무료 공연.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기획 공연 '국화를 들고'에 출연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진.



극단 '즐거찾기'

는 탈춤 무대로 채웠다.

공연은 9월 3일 오후 2시 20분·4일 오후 1시 30분 북구 청소년수련관 상상마루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입장료 무료.

북구(구청장 문인) 곳곳에서 펼쳐지는 주말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31일 오후 5시 용봉초록습지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는 송은이, 진이, 밴드 '블루스카이' 등이 출연해 대중가요, 국악메들리 등을 무대에 올린다.

'평촌마을 반딧불 체험'도 오는 31일 오후 6시

평촌마을 일대(북구 평촌길 15)에서 진행된다. 올해 북구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날 행사는 반딧불이 관찰, 마늘길 걸으며 반딧불이 찾아보기 등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비 3000원.

이밖에도 30일 오후 6시 30분 양산호수공원, 31일 오후 7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는 통기타 연주, 대중가요 등을 선보이는 공연 '리리버스킹'이 펼쳐진다. 매주 금요일 밤 진행되는 '주민 dot자리 야외영화제'도 30일 오후 8시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앞 잔디밭에서 열려 영화 '라라랜드'를 무료 상영한다. /유연재 기자 yjyou@

'다르기 상생의 길을 찾다'

'문화포럼' 31일 예술의 거리 시우

국제다르기문화예술교류협회가 오는 31일 오후 5시 예술의거리 시우(동구 예술길 27-5)에서 '2019 다르기 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날의 주제는 '다르기 상생의 길을 찾다'.

'다르기'는 순수 우리말로 '함께', '더불어'라는 뜻을 가졌으며 각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신명난 문화예술한마당을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역 예술계에서는 '다르기-Together'를 타이틀로 지난 2014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를 열어왔다.

이날은 '다르기'의 주요현안에 대한 발표와 의견 수렴, 참여자 인터뷰 영상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김경호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정책학 박사)가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는 정한을 다르기추진위원장이 '다르기' 연혁을 발표하며 막을 올린다.

송진영(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을 발표하고, 정지운(한국이민·다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이 '다르기와 다문화, 이주민 정책 연계 전략'을 발표한다.

여영숙(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이 '다르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소개하고, 조영대 신부(다르기공동추진위원장)가 '다르기'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亞문화원, 지역민과 소통 강화

'지역소통존' 현판식 갖고 운영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최근 '지역소통존' 현판식을 갖고 지역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전담 창구 설치 및 운영에 들어갔다.

지역소통존은 전담직원 배치와 전용소통콜 운영 등 오프라인 소통전담 창구로서, 지역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관·개인 등이 제안하는 정책과 협력사업 등을 접수한 뒤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안내하게 된다. 특히 지역과의 소통 플랫폼이 될 소통존을 통해 들어온 사업 중 타당성 높은 제안과 아이디어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소통존은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조직 이원화에 따른 민원 혼선을 해소하고 온라인 접근이 취약한 지역 중·장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역협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사업으로 지역소통존 설치·운영, 지역협력 네트워크 강화, 1팀 1지역사랑 사업, 지역상생지수 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선시대 객사 중 가장 규모가 큰 '나주 금성관'

(사진=나주시 제공)

조선시대 객사 '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된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인 '나주 금성관'(羅州錦城館)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나주시에 있는 객사(客舍)인 나주 금성관(전남유형문화재 제2호)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객사란 전패와 궐패를 두고 초하루와 보름에 망궐례를 행하던 건물이자 지방에 오는 관원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목조 기구와 공포형식은 1775년과 1885년 중수 당시의 기법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규모와 골격은

여러 문헌으로 보아 1617년 중수 당시의 형태를 추정된다. 특히 금성관은 조선 시대 객사 건축물 가운데 규모가 클 뿐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 일반 맞배지붕과 대비된다. 또한 월대와 건물 외관, 내부 천장 등이 궁궐의 정전과 유사하게 구성된 점도 다른 객사와 구별된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라는 점,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오랫동안 나주군청과 시청으로 사용되면서도 전반적인 원형을 유지해 온 점 등이 인정을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

9월1일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 '춤'

전통문화관 일요상설공연이 올 하반기 공연의 문을 연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판소리 굿, 연희, 창작국악 등 매달 색다른 장르로 시민들을 만나는 일

요상설공연 9월의 주제는 '춤'. 하반기 첫 무대 '당신은 지금 빛고을에 살고 있군요'는 오는 9월 1일 오후 3시 너털마당에서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예술단체 '춤추는 여자들'이 출연해 자신만의 춤을 선보이며 막을 올린다. 연극, 시 낭송, 장구연주 등이 이어지며, 출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어울리며 춤추는 춤 파티가 마련된다.

'춤추는 여자들'은 배우, 무용가, 음악가 등 다양한 장르의 중견 예술가들이 한 데 모여 결성한 단체로, 이날은 대한민국 연극대상 연기상 수상자 강애심을 비롯한 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 공연으로는 현대레와 제례악무로 지내는 무형문화재 추모제 '故 무형문화재 얼을 기리며'(9월 8일), 전통놀이, 강강술래, 약가무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요점방'의 '한가위 무등놀이'(9월 15일) 등이 준비돼 있다. 무료 관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예술단체 '춤추는 여자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유아교육과	7	3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 ~ 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대학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형일: 2019. 8. 20(화)